

- 주요 뉴스: 연준 주요 인사, 통화긴축 의지 강조. 양호한 경제지표도 긴축 기초를 뒷받침
 -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, ECB는 7월 0.5%p 금리인상 필요
 - 중국 5월 차이신 제조업 PMI, 전월비 상승. 다만 여전히 확장의 기준인 50 하회
 - 일본은행 부총재, 임금의 추가 상승 확인할 때까지 완화정책 유지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0.8%], 달러화 강세[+0.8%], 금리 상승[+6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긴축 예상 등이 원인
 유로 Stoxx600지수는 독일 5월 소매매출 부진에 의한 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1.0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제조업 및 고용 지표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8%, 1.1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2주래 최고치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6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47.4원, +9.7원) 0.8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6/1일	5/31일	전일대비			6/1일	5/3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01.2	4,132.2	-0.75%	국채 금리 10y	미국	2.91%	2.84%	6bp
	유럽	438.72	443.35	-1.04%		독일	1.19%	1.12%	6bp
	중국	3,182.2	3,186.4	-0.13%	CDS 5y	한국	45bp	45bp	0bp
	일본	27,458	27,280	0.65%		중국	71bp	71bp	0bp
	한국	휴장	2,685.9	-	위험 지표	EMBI+	-	378	-
환율	달러지수	102.54	101.75	0.78%		VIX	25.69	26.19	-1.91%
	유로화	1.0650	1.0734	-0.78%		WTI유	115.26	114.67	0.51%
	엔화	130.13	128.67	-1.12%	원자재	구리	432.9	429.6	0.76%
	위안화	6.6862	6.6718	-0.22%		금	1,846.6	1,837.4	0.50%
	원화	휴장	1,237.2	-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주요 인사, 통화긴축 의지 강조. 양호한 경제지표도 긴축 기조를 뒷받침

-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연준이 물가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하며,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기대 관련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주장. 이번 발언은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시사
-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합리적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금리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.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신속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첨언
- 한편 일부 경제지표들도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, 연준의 통화긴축 경로 유지에 정당성을 부여. 4월 JOLTS 구인건수는 1140만건으로 전월(1186만건) 대비 소폭 감소.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유지
- 블룸버그의 Eliza Winger는 노동시장에서 제조업 부문의 수요우위 상황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서비스 부문에서 수요가 확대되었다고 평가. 이에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
- 5월 ISM 제조업 경기지수는 56.1을 기록하여 전월(55.4) 및 예상치(54.5) 상회. 세부적으로 신규수주 등이 전월비 큰 폭 증가. ISM은 제조업 부문에서 여전히 양호한 수요와 공급차질 심화 등의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지역연은경제보고(베이지북),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. 일부 수요둔화 신호 발생

- 4월~5월말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업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. 또한 물가안정 혹은 노동시장의 수급 개선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
-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동수급 불균형이 지속되어 임금인상 압력이 강하다고 제시.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
- 몇몇 기업들은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둔화,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수요 감소가 발생했다고 평가. 아울러 연준의 통화긴축 등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서도 양호했던 소비 및 성장이 결국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

■ 미국 재무차관, 고물가 지속은 전세계적 현상.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낮은 편

- 아데예모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급격한 물가상승세를 대비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웠다고 언급. 다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대응이 경기침체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
- 한편 옐런 재무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제어라고 강조. 또한 과거 인플레이션 전망에 오류가 있었다고 발언

■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, ECB는 7월 0.5%p 금리인상 필요

- 홀츠먼 총재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이 7월 0.5%p 인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

■ 독일 5월 소매매출, 전월비 큰 폭 감소. 식품가격의 상승 등이 영향

-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매매출이 전월비 5.4% 감소하여 전월(0.9%) 및 예상치(-0.2%)를 모두 하회. 이는 식품, 의류 부문 등의 부진이 주요 원인. 또한 중국의 경제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 지속 등도 소매매출에 부정적으로 작용

■ 중국 5월 차이신 제조업 PMI, 전월비 상승. 다만 여전히 확장의 기준인 50 하회

- 해당 지수는 48.1을 기록하여 전월(46.0) 및 예상치(48.0) 상회. 세부 항목 가운데 생산부문이 코로나 19 감염 및 소비 둔화 등으로 하락했으며, 수출 수주 역시 하락했으나 하락세는 둔화.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봉쇄 완화 영향으로 제조업 활동이 다소 향상
- 차이신 인사이트 그룹의 Wang Zhe는 고용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며, 이에 당국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

■ 일본은행 부총재, 임금의 추가 상승 확인할 때까지 완화정책 유지

- 와카타베 마사즈미 부총재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아직 꾸준히 2%를 상회하지는 않기에 완화적 통화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언.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요인이 주요 원인이기에 통화정책이 적절한 대응책은 아니라고 지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6/2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5월 ADP 민간고용, 5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미국의 아시아 영향력, 정책변화에도 여전히 중국보다 열위 - The New York Times**
(China Is Winning in Asia. Biden's Plans Won't Change That.)
 -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경제 및 외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, 중국 우위의 판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평가. 수출과 투자에서 중국의 아시아 내 경쟁력이 커지고 있고, 무역협정도 유사한 상황
 - 미국은 인도-태평양 경제 협력 등을 강조하지만, 자국 시장개방 확대에는 미온적.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일대일로를 비롯하여 미국보다 적극적.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추진하지만, 여전히 중국보다 열세에 놓인 상태임을 인식할 필요
- **유럽의 고물가, 수요 측면에서 핵심 원인이 미국의 경우와 상이 - Financial Times**
(Why Europe's inflation is different)
 - 유럽은 미국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편.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압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
 - 그러나 수요 관련해서는 양측의 상황이 상이. 유럽 주요국의 가계소비 및 근무시간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반면, 미국은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과 양호한 소비 등이 인플레이션에 크게 기여
 - 한편 러-우 전쟁의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, 유럽의 고물가 지속이 예상되며, 이에 ECB 역시 통화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전망
- **중국의 경제 둔화, 해외 투자자를 위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제공 - Financial Times**
(An opportunity for China to improve ties with foreign investors)
- **연준의 통화정책, 통화긴축에 필요한 인플레이션 전망이 요구 - 블룸버그**
(Federal Reserve's Mild Inflation Forecasts Need Explaining)
- **신홍국 부채 증가, 선진국의 부채조정 부재 시 중국의 영향력 증대 예상 - Financial Times**
(Sri Lanka's problems are an alarm call for emerging market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